

開港百年史의 社會經濟的 意義

高 承 濟*

1. 開港期の 範域規定

開港을 精神史側面에서 보는 境遇와 社會經濟史의側面에서 보는 境遇에 따라서 開港期의 範域을 規定하는 內容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李朝國家가 開港을 開國으로 보고 開國을 天主教(西學)의 受容을 뜻한다는 假定에 立脚하여 歐美列強의 開港要求를 拒否하여 왔던 歷史的 事實에 비추어 본다면 開港期는 18⁶年의 丙子(江華)條約을 始發點으로 하고 1886年 5月에 締結되었던 韓佛修好通商條約을 完結點으로 볼 수가 있게 된다. 韓佛修好通商條約의 締結에 따라서, 天主教가 合法的인 宣敎活動을 벌릴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開港을 社會經濟史의側面에서 본다면 開港은 開國을 뜻하는 것이며 開國은 外國資本의 對韓投資權을 承認하는 假定에 立脚하여 開港期의 範域을 測定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丙子(江華)條約을 開港期의 始發點으로 보고 1906年 7月에 發表된 鑛業法의 公布를 開港期의 完結點으로 볼 수가 있게 된다. 이 鑛業法이야말로 外國資本의 對韓投資를 承認하는 法規이기 때문이다. 1876年의 丙子(江華)條約을 비롯하여 1891년에 締結된 韓·澳修交條約에 이르기까지 調印되었던 開港條約이 不平等條約의 性格을 지니었다. 그런데 不平等條約에 따라서 強行되었던 開港의 特殊한 意義를 찾아내기 위하여서는 開港條約의 不平等性을 象徵하는 外國資本의 對韓投資權이 承認되는 過程까지를 考慮하지 않을 수가 없다.

1906年 7月에 公布된 鑛業法은 이미 이루어진 外國資本의 對韓投資를 事後的으로 承認하는 要式行爲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1896년에 美國이 雲山金鑛의 開發權을, 獨逸이 江原道堂岾金鑛의 開發權을, 英國이 平北殷山金鑛의 開發權을, 日本이 忠南稷山金鑛의 開發權을 宮內部로부터 獲得하였던 것이다¹⁾. 따라서 外國資本에 金鑛開發權을 特許形式으로 認定한 事件이 發生하였던 1896年을 開港期의 完結點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金鑛開發의 特許權制度는 皇室의 所有權을 前提로 하는 質貸制度이었기 때문에 外國資本에 對하여 鑛山이 所有權과 運營權을 承認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려울지 모른다.

*學術院會員, 서울大學校人文大學講師

1) 淺野 虎三郎, 朝鮮鑛業誌, 1913年, 85面

2 經濟學研究

따라서 開港期の 完結點은 1906年 7月の 鑛業法の 公布로 보는 것이 妥當한 方法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어쨌든 1876年을 開港期の 始發點으로 보고 1906年을 開港期の 完結點으로 본다면 開港期の 時間的인 길이는 30年間을 헤아릴 수가 있게 된다. 이 30年間에 韓國의 社會와 經濟에 어떠한 變化가 發生하였는가. 開港100年史가 追求하여야 할 解明課題는 開發期에 港生하였던 社會經濟的變化를 把握하고 開港期를 뒤따르는 歷史過程에 있어 거듭되었던 變化相을 解明하는 것인줄로 믿는다.

開港期에 發生하였던 社會的側面的 變化相은 仁川·釜山·元山·鎭南浦·木浦·群山·馬山浦·城津·新義州·서울(京城)·清津等 11個所의 開港場이 都市로 發展하여 村落社會 主導型的인 韓國社會에 都市社會의 面貌를 附加시켰던 事實로 象徵하여 볼 수가 있다. 開港이 빚어낸 社會的側面的 變化相에 關한 解明은 다른 機會에 試圖한 바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報告에 있어서는 開港期에 發生하였던 經濟的側面的 變化相을 解明하는 일에 注力하여 보려고 한다.

2. 商業主義의 擡頭

李朝封建社會는 中國이나 日本의 境遇와는 달리 商業活動이 經濟生活體制 안에서 차지하였던 地位가 劣弱하였다.

무엇보다도 柳壽垣(1694~1755)의 迂書에 나타나 있는 證言을 들어 보기로 하겠다.

「中國은 產物이 豊富하고 地勢가 平坦하여 배와 수레와 말들이 밤낮으로 貨物을 輸送할 수 있기 때문에 交易이 쉽게 이루어져 工·商이 크게 繁盛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國土의 3分の2가 山이어서 平野는 거의 없고 모두가 險難한 산골 뿐이다. 그리하여 거개의 사람들이 돌틈바귀에 끼여 살게 되어 있으니 배나 수레가 다닐만한 곳이 없다.

게다가 物產까지도 심히 貧弱하여 交易될 만한 것조차 없는 形便이다. 이른바 馬販子(말점장수)와 背負商(북짐장수)들이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別로 팔지를 못하고, 서울의 立廳(선전 또는 선전이라 부르며 六注比廳을 뜻함) 商人들이 눈이 빠지게 손님을 기다려도 팔을 내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大部分인 것이다.

이러한 점들로 보면 工·商을 盛行시키고자 努力한다고 해서 이를 이룰 수가 있겠는가?」²⁾

柳壽垣은 18世紀 初葉에 露呈되었던 商業活動의 不振狀態를 李朝經濟體制가 지니었던 最大의 病弊로 斷定하였다. 그러나 商業活動이 不振하지 않을 수 없었던 原因을 神明함에 있어 柳壽垣이提起하였던 自然地理的條件만을 充分한 理由로 볼 수가 없다. 보다 根本的인 要因은 富가 中央 및 地方의 行政權을 掌握하고 있었던 封建官僚(衙前에 이르기까지)의 手중에 偏在하여 「民富」가 形成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商業活動의 社會的 基盤이 造成될 수 없었다는 事實에서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

封建官僚가 唯一한 富의 蓄積者이었다는 事實이 商業活動의 制約要因으로 作用하였다는 命題를 解明하기 爲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補充解說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富의 唯一한 蓄積者인 封建官僚가 中國이나 日本의 境遇에 있어서는 富의 蓄積者로 登場할 수가 있었던 地主·商人·高利貸業者의 機能을 併占하였다는 事實이다.³⁾

이처럼 封建의 官僚層이 地主·商人·高利貸業者의 機能을 併占하고 있었던 社會經濟體

制는 近代社會에 對한 志向勢力의 形成을 拒否하는 強靱한 體質을 지니고 있었다.

近代社會에 對한 志向運動은 政治權力의 動搖를 뜻하는 것이며 政治權力의 動搖는 封建 官僚層이 獨占하고 있었던 富의 蓄積原動力을 喪失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開港과 더불어 外國貿易이 盛行됨에 따라서 商業活動을 制約하여 왔던 社會經濟體制는 崩壞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局面을 맞이하여 李朝政府의 指導者들은 外國人商權의 伸張에 對應하기 爲하여 商業主導型의 經濟政策을 提唱하게 되었다.

兪吉濬의 事例를 들어 보기로 하겠다. 兪吉濬이 日本의 慶應大學에서 政治經濟學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美國에서도 같은 科目을 修學한 然後에 歐羅巴各國을 巡訪하고 歸國한 것이 1880年이다. 兪吉濬의 「西遊見聞」은 開港期를 맞이한 韓國이 定立하여야 할 經濟政策의 方向을 提示하는 意見書로서 特異한 歷史的 意義를 지니고 있는 著書로서 特異한 歷史的 意義를 지니고 있는 著書로 볼 수가 있다. 그런데 兪吉濬은 「西遊見聞」에서 商業의 促進策을 排他的으로 強調하고 商業의 發達을 爲한 基本的인 促進手段으로서 商人의 社會의 地位를 向上시켜야 하며 歐美式的 株式會社形態의 商業會社를 設立하여야 한다는 見解를 表明하였던 것이다³⁾.

開港과 더불어 深化되고 있었던 外國人商權의 伸張趨勢를 抑制하여 볼려는 李朝政府의 對應策을 商業主義로 特徵지어 볼 수가 있다는 命題는 兪吉濬의 事例로서 立證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李朝社會經濟體制를 貫流하여 왔던 賤商의 身分制度가 解體됨에 따라서 商業에 從事하는 職業人口가 急激한 增加趨勢를 보이게 되었다. 1912年에 이르러 韓國人의 職業別 人口構成에 있어 農林業人口의 1,208萬2,520名에 對하여 商業 및 交通業人口가 99萬0,365名으로 2位를 차지할 수가 있게 되었다. 商業 및 交通業人口에 比하여 工業人口는 20萬8,315名이고 公務 및 自由業人口는 17萬5,995名이었다⁴⁾.

開港期에 싹터 왔던 商業人口의 增加現象이 1912年에 이르러 商業人口가 農業人口 다음가는 比重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으로 풀이하여 볼 수가 있다.

한편 商人層의 社會의 身分도 驚異的인 上昇趨勢를 보이었다. 한가지 事例만을 들어 보기로 하겠다. 1905年 7月5日에서 8月16日에 이르는 동안에 仁川監理로 任命되었던 徐相準은 仁川의 客主組合이었던 紳商會社의 設立者로 役割하였다. 仁川監理라면 仁川의 觀察使에 該當하는 官職이었다. 仁川監理의 자리에서 물러난 徐相準은 米穀과 大豆를 다루는 客主業을 經營하였던 것이다. 어쨌든 徐相準의 事例는 賤商政策을 實踐하여왔던 李朝政府의 高級官人들이 스스로 商業을 賤視하는 職業觀을 물리치고 商人으로 되었던 時代의 風潮를 代辯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⁵⁾.

商業主義思潮는 農林業人口를 商業部門으로 流入시키었을 뿐만 아니라 手工業의 經營者들도 商業으로 轉換시키는 結果를 가져왔다. 李昇薰의 事例를 보기로 하겠다. 1887年 까지 鑛器의 行商을 하여왔던 輸入된 李昇薰은 數 많은 勞動者를 거느리는 鐵器工場을 設立할 수 있게 되었다. 淸日戰爭으로 鐵器工場의 廢墟가 되었기 때문에 李昇薰은 仁川港에 輸入된 石油・洋藥・紙物・建築資材・日用雜貨等を 다루는 都賣業者가 되었다. 洋品の 都賣業에

3) 崔虎鎮, 「李朝後期에 있어서 高利貸資本階層」, 經濟學研究, 第5輯(1957年 12月), 7面

4) 兪吉濬, 西遊見聞, 第14編, 商賈의 大道條 및 第18編, 商社條

5) 朝鮮總督府統計年報年度(1914 版), 34~37面

6) 高承濟, 韓國經營史研究, 1975年, 43面

4 經濟學研究

서 成功한 李昇薰은 50萬兩의 富力을 蓄積할 수가 있었다. 이 事實을 「南崗李昇薰傳」은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이렇게 7~8年 繼續하는 동안에 純利益이 그 때 돈으로 50萬兩이 넘었다. 그 때 밭 하루같이(約 3,000坪)에 땅값이 서돈(三錢)이고 도야지(豚) 한 마리도 2~3錢 밖에 안되고 소 한 필에 한兩 가량 하던 그때에 50萬兩(5萬圓)이라면 宏壯한 돈이었다. 至今으로 말하면 4~5百億圓이 넘 을 터이니 當時 우리 나라 甲富임은 틀림없는 일이다.」⁷⁾

그런데 開港場의 都賣商으로 巨富가 되었던 李昇薰이가 1902년부터 抗日運動에 參與하였으며 3.1運動의 指導者로 役割하였던 事實을 어떻게 풀이하여야 좋을 것인가. 開港期에 定立되었던 外國人商權의 伸張趨勢에 對한 商業主義의 對應策을 몸소 實踐하였던 商人層의 意識構造가 뚜렷히 民族主義에 뿌리를 박고 있었다는 事實을 李昇薰의 生涯가 말하여 주는 것으로 理解하지 않을 수가 없다.

3. 賃金勞動者의 形成과 意識構造

開港場으로 流入하는 韓國人人口의 增加趨勢는 開港期뿐만 아니라 開港期를 뒤이은 歷史過程에 있어서도 連續히 繼續되어 왔던 人口移動現象이었던 것이다. 그러던 開港場에 流入하였던 韓國人들은 어떠한 職業을 가지게 되었던 것인가. 이것은 開港이 韓國人을 어떻게 變化시키었느냐를 解明하는 基本課題로 볼 수 있는 것이다.

1896년에 美·英·佛 3個國資本이 合資하여 設立한 「東洋合同鑛業會社」가 雲山金鑛을 經營함에 있어 4,000名의 韓國人 勞動者와 500名의 中國人 勞動者를 雇傭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1900年 10월에 印紙·郵票用紙를 製作하기 爲하여 農商工部안에 設立된 造紙所에는 15名의 韓國人女性들이 古來의 風習을 깨뜨리고 女工生活를 始作하였다고 한다.⁸⁾

이처럼 開港期에 韓國人들이 男女의 區別없이 鑛工業을 비롯하여 商業 및 서어비스業에 이르기까지 賃金勞動者라는 새로운 職業人으로 登場하게 되었다. 그런데 日帝時代의 各種 統計는 賃金勞動者數를 明示하지 않는 나쁜 慣習을 지니어 왔다.

따라서 開港場에 流入한 韓國人中에서 賃金勞動者라는 職業을 가진 사람들의 數字가 어떻게 增加하여 왔는가를 밝힐 道理가 없다. 1922年 7월에 朝鮮總督府가 調査한 바에 의하면 韓國人 勞動者數는 91萬8,603名(男子 88萬2,291名, 女子 3萬6,312名)이었다고 한다.⁹⁾

그런데 1922년에 工業에 從事하는 韓國人數는 35萬8,205名이고 商業 및 交通業에 從事하는 韓國人數는 97萬1,195名으로 合計하여 132萬9,400名을 헤아릴 수가 있다. 이제 132萬9,400名中에서 賃金勞動者로 일하는 韓國人數가 91萬8,603名이었으니 總商工業人口數의 61.6%가 賃金勞動者이었던 것으로 推定하여 볼 수가 있게 된다.

따라서 開港場에 流入하였던 韓國人數의 3分の2가 賃金勞動者가 되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

1901年末에 이르러 木浦港에서 일하고 있었던 韓國人港灣勞動者들은 貨物當 運搬賃金を 1文(2厘)씩이나 引下하는 措置에 對하여서 罷業으로 對抗하는 事態가 벌어졌다. 韓國勞動者들의 罷業으로 말미암아 運商業務가 中斷되자 日本人側은 韓國側의 監理署에 交渉하여 오히려 賃金を 引上하는 條件으로 罷業을 解決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7) 金道泰, 南崗 李昇薰傳, 1275年, 132面

8) 京城府編, 京城府史, 第2卷, 1936年, 1016面

9) 朝鮮總督府編, 朝鮮의 郡衆, 1926年, 55面

이와같은 賃金紛爭 때문에 發生하였던 罷業事件은 1898年 2月과 9월에 있었으며 1900年 3월에도 發生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던 罷業이 解決된 然時에도 1901年12月, 1902年 12月, 1903年 12월에 걸쳐서 年例行事처럼 거듭되었던 것이다¹⁰⁾.

木浦港에서 發生하였던 罷業事件들은 그 動機가 賃金問題에 있었던 것이나 罷業運動은 日本人商權의 伸張에 對한 抵抗運動의 形態로 實踐되었다는 事實은 注目할만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

1898年 2月の 罷業事件만 보더라도 韓國人勞動者들은 日本商人들에게 米穀을 去來하는 客主業者들을 說得하여 商去來를 中止시키었으며 日本人들이 韓國人居住圈에 出入하는 것을 嚴禁하였다. 이와같은 罷業運動의 形態는 確實히 民族主義에 뿌리를 박은 對日通商에 對한 抵抗運動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4. 產業主義의 未成熟

開港期를 맞이하여 李朝政府가 定立하였던 經濟的對應策이 商業主義를 基調로하는 것이었다는 事實은 이미 앞에서 보아 온 바와같다. 外國人商權의 張伸勢를 抑制하기 爲한 對應策이 商業主義를 基調로하는 經濟政策이었다는 事實은 開港期의 經濟的對應策이 產業主義(industrialism)를 缺如하는 것이었다는 事實을 反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韓日合邦의 直前까지 798所의 金 및 砂金鑛이 許可鑛山으로 操業하고 있었다. 日本人經營의 鑛山數가 483個所인데 反하여 韓國人經營의 鑛山數는 270個所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歐美人經營의 鑛山數가 45個所이었다¹¹⁾.

民族別所有鑛山數의 分布相을 말하는 이 統計數字를 檢討의 對象으로 삼아보아야 하겠다. 日本人들이 483個所의 鑛山을 經營하였으며 歐美人들이 45個所의 鑛山을 經營하였던 것은 分明한 事實이다. 그러던 日本人들이나 歐美人들은 어떤 動機에 立脚하여 韓國의 鑛山을 所有經營하였던 것인가. 韓國에서 金 및 砂金を 輸出하여 갈 수 있는 輸出對象物資의 確實한 方案을 造成하기 위한 不可避한 手段으로서 韓國의 鑛山을 所有·經營하는 便法을 講究하는 商業行爲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開港期에 韓國의 利權集團으로 알려져있던 「콜브란」(H. Collbran)과 「보스트윅」(H. R. Bostwick)그룹이 經營하였던 遂安金鑛은 해마다 80%나 되는 驚異의인 收益을 올릴 수가 있었다고 한다¹²⁾. 그들은 簡單한 選鑛施設만을 갖추고 德大制度라는 前近代의인 經營方式을 繼承하면서 金鑛을 經營하였기 때문에 80%의 配當率을 올릴 수 있을만큼한 巨大한 收益을 얻었던 것이다.

483個所의 鑛山을 所有·經營하였던 日本人들은 모조리 德大制度라는 舊來의 經營法을 踏襲하였을 뿐만 아니라 採鑛이나 選鑛施設마저 舊來方式을 그냥 使用하였다. 그렇다면 歐美人이나 日本人의 境遇를 莫論하고 그들이 韓國의 鑛山을 所有·經營하였던 根本的인 動機는 輸出物資의 調達을 위한 方便이었던만큼 商業主義의 性格을 지닌 것이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다음에 어찌하여 日本人들이 483個所의 鑛山을 所有·經營할 수 있었는가. 가장 普遍的인 方式이 韓國人鑛主들로부터 所有權을 買入하는 形式으로 것처럼 많은 鑛山을 所有할

10) 木浦誌編纂會編, 木浦誌, 1914年, 597~607面

11) 山口 豊正, 朝鮮之研究, 1911年, 203面

12) 淺野 虎三郎, 前掲書, 94面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다. 鑛山을 所有하였던 韓國人이란 富를 獨占의으로 占有하였던 封建官僚層이었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들이 日本人들에게 鑛山權을 賣却하는 일에 餘念이 없었다는 事實은 李朝政府가 定立하였던 商業主義를 基調로하는 經濟政策에 對하여 그들 스스로가 協力者가 되는 길을 물리치고 非協力者가 되는 길을 擇一하였다는 事實을 말하여 주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콜브란」·「보스트윅」그룹은 1899年 4월에 高宗皇帝와 合資하는 形式으로 漢城電氣株式會社를 設立하였다. 漢城電氣株式會社는 發電所를 設立하였으며 電氣軌道를 設置하였던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事實이다. 그러면 漢城電氣株式會社의 設立을 商業主義의 發靈로 볼 것인가. 產業主義의 發靈로 볼 것인가. 무엇보다도 「콜브란」·「보스트윅」그룹이 지니고 있었던 性格이 먼저 檢討되어야 할 것 같다. 그들이 이룩한 事業行爲는 產業主義이기에 앞서 商業主義였으며 商業主義이기에 앞서 國際貸金業者로서 이룩한 貸金業行爲에 지나지 않았다. 漢城東氣株式會社의 設立은 그들에게 있어 가장 有益한 高利貸行爲이었던 것이다.

日帝時代에 걸쳐서 民族產業으로 꾸준한 成長을 보여 왔던 메리야스工業의 形成過程을 살펴어 보기로 하겠다. 1906년에 金基浩가 양말機械를 設置하고 적은 메리야스工場을 設立하였다. 또한 1907년에는 孫昌潤이 共信양말工場을 設立하였다. 그러면 이와같은 메리야스工場의 設立을 產業主義의 發靈로 볼 수가 있는가. 金基浩나 孫昌潤이나 할 것 없이 平壤의 布木商人들이었다. 그들이 양말工場을 設立하였던 動機는 布木商人으로서 양말이라는 새로운 去來品目을 確保하는 方便으로서 家內工業的인 양말工場을 設立하였음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韓國에서 產業主義가 發靈되기 始作한 것은 언제이었는데가. 아무래도 1922年 1월에 操業을 開始하였던 朝鮮紡織株式會社와 1923年 3월에 操業을 開始하였던 京城紡績株式會社의 設立을 產業主義의 發靈로 볼 수 밖에 없다.

5. 結 言

自主獨立民族의 立場에서 韓國의 近代化課業은 進行되고 있다. 그러면 開港 100年史에서 어떠한 敎訓을 얻어야 하는가. 먼저 1974年 4月末現在로 10名以上の 從業員을 거느리는 企業體數가 2萬1,528個所로 增加하였다. 10名以下の 從業員을 거느리는 業種別業體總數를 把握하기가 어렵다. 다만 製造工業에 있어 10名以下の 從業員을 거느리는 零細業體數가 1萬9,176個所라는 數字만을 찾아볼 수가 있을 뿐이다.

어쨌든 이처럼 増加를 거듭하여 가고 있는 企業體들을 所有·經營하고 있는 經營者들의 企業家精神이 近代的인 것인가, 前近代的인 것인가, 이것이 近代化의 成果를 判別하는 基準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企業家精神이 近代的인 것인가, 前近代的인 것인가를 判別하는 基準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企業家精神이 商業主義에 뿌리를 박고 있는가, 產業主義에 뿌리를 박고 있는가에 따라서 決定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開港 100年間の 歷史過程에 있어 產業主義가 韓國社會의 底邊에까지 浸透하기가 어려웠던 時代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產業主義가 韓國社會의 底邊에 浸透하는 程度에 따라서 近代化課業의 成果가 決定되는 것으로 내다보지 않을 수가 없다.

다음에 1974年末現在로 1,158萬6,000名이 各種事業部門에 걸쳐서 從業員으로 일하고 있

다. 男性從業員이 727萬5,000名이고 女性從業員이 431萬1,000名이다¹³⁾.

이제 企業의 經營業과 從業員사이에 形成되고 있는 人間關係의 類型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이것은 近代化成果를 평가하는 重要한 基準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앞에서 보아 왔던 바와 같이 日帝時代에 形成되었던 勞資關係의 原型은 植民地支配者和 植民地被支配者 사이에 가로 놓여졌던 主從關係를 폐탄으로 삼는 것이었다. 따라서 企業經營者와 從業員사이에 形成되어야 할 새로운 人間關係는 主從關係의 폐탄에서 벗어나는 近代的인 互惠의 人間關係로 改善하는 課業이 서둘러져야 하겠다. 開港 100年史가 近代的인 勞資關係의 形成이 近代課業의 成果를 規定하는 要因이 되는 것이라는 敎訓을 남기어 주고 있는 때문에 이와같은 結言을 맺게 되는 것이다.

13) 經濟企劃院統計局, 韓國統計年鑑(1975年度版), 68面